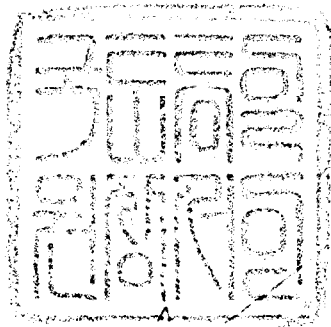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下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年 12月 日



李 滿 基



## 目 次

緒 論 .....	3
第 1 章 北韓經濟体制의 現実과 問題点 .....	8
第 2 章 北韓經濟体制의 變質可能性 .....	29
第 3 章 經濟交流을 통한 北韓經濟의 變質誘導 .....	51



## 緒 論

이 論文은 최근 격동하는 國際情勢의 변화와 南北韓의 對話, 韓半島에 대한 UN의 討議方向의 변화속에서 北韓의 經濟体制의 變質可能性과 그 變質의 誘導方向을 찾아보기 위하여 쓰는 것이다.

經濟体制의 변동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지만, 또한 經濟体制의 內容에 있어서는 유동적인 면도 고찰할 수 있으므로 本論에 들어가기 전에 이에 대한 定義와 가정을 해두는 것이 옳을것 같다.

첫째 北韓의 經濟体制는 社會主義 또는 共產主義經濟体制라고 볼 수 있으나, 現實에 있어서 그들이 주장하는 社會主義의 理想型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共產圈에 속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經濟体制가 반드시 同質的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社會主義經濟体制로서의 北韓의 經濟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음미해야 하겠다. 말하자면 社會主義國家中에서 成功된 經濟体制를 갖고 있느냐, 또는 失敗한 經濟体制를 갖고 있느냐하는 것을 고찰해야 한다.

둘째는 北韓의 經濟体制가 資本主義經濟, 특히 南韓의 經濟体制와 비교하여 어떠한 現實的差異가 있는가를 검토해야 하겠다. 開發途上의 時期에 있어서 經濟와 計劃을 원칙으로 하는 社會主義体制와 自由와 調和를 원칙으로 하는 資本主義体制間에는 開發의 效果에 각각 長點과 短點을 內包할 수 있다.

세째는 北韓의 經濟体制은 종래 社會主義의 宗主國이었던 소련과 최근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中共등의 배후에 있는 共產主義의 強大國과의 政治的關係를 기초로 하고 있다. 최근 自主的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으나 北韓의 自主性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고찰해야 하겠다.

네째로 北韓의 經濟体制의 變質은 內的 및 外的要因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內的要因은 經濟水準의 變化와 政治 및 社會制度의 變化發展에 의하여 추구되며, 外的要因은 최근의 급변하는 國際政治, 國際經濟情勢에 따라 影響을 받는 것이다. 특히 本論文은 이 部門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할 것이며, 南北韓의 對話와 經濟的交流의 可能性등을 음미하면서 우리의 經濟的 影響力이 그들에게 얼마나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할 것이다.

北韓의 經濟体制의 變動가능성을 검토하는데에는 몇가지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未完成된 社會主義國家로부터 社會主義國家로 指向하는데 따른 体制의 變動可能性이다. 社會主義体制의 범위내에서도 所得水準이 低位인 貧國으로부터 所得水準이 높아지고 富가 증대되면 体制의 内部的變動이 따를 수 있다.

그것은 社會主義의 宗主國인 소련이 共產主義革命當時와 現在에 있어서의 經濟体制의 變化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으며 특히 現在에는 증가된 富와 함께 体制上的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통하여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北韓社會의 고무적이고 特有的 獨재적 支配体制로 인하여

위와같은 자연적인 体制의 變動可能性은 상당히 制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內的이고 自然的인 變動에 대한 高찰이 더 중요하게 되는 理由를 제기해 준다. 다시 말하면 生産을 除外한 共産圈社会의 變動, 共産圈을 除外한 自由主義国家의 經濟水準의 變動, 共産圈과 自由圈의 對立關係의 變動, 南北韓의 각각의 國際社会에 있어서의 地位의 變動등의 여러 가지 要因에 따라 左右되는 外部的의 要因이 그들 内部的 要因보다 的의가 클 것이다.

이와 같은 北韓經濟의 体制의 變動을 음미하면서 우리는 우리 体制에의 접근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誘導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것이 本論文의 結論的部分이 되겠다. 우리 体制에의 접근을 유도하는 방향은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自由化 또는 資本化의 方向을 생각할 수 있다. 自由化에 대해서는 國共有의 生産手段을 個人所有로 하고 個人의 自由로운 生産活動에 이르기까지를 생각하기에는 요원한 것이나, 단계적으로 財貨의 價值判斷에 대한 消費者의 참여로부터 시작하여 生産과 經營에의 創意의 기여도를 얼마만큼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財貨의 價格을 費用에만 기준으로 하고 効用을 무시하는 것은 生産의 측면만 고려하고 消費의 측면은 무시하는 것이며 결국 生産은 集團의 意思決定에 의존되므로 모든것이 個人의 意思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現實에 있어서 價格決定에 대한 需要의 측면에서의 價值判斷이 전혀 무시될 수 없는 것이 現在 소련과

같은 共產主義社會에서도 論議되고 있는 것과 같이 自由化의 첫 단 계로는 財貨의 價値에 대한 消費者의 참여 또는 비록 제한된 범 위에서라도 財貨의 선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 문제는 本論에서 보다 깊이 다루기로 하겠다. 企業의 運營에 있어서도 企業利潤의 發生에 따른 「인센티브」적인 制度的改革이 요구됨에 따라 變質可能性을 모색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變質可能性은 自由化 또는 資本化에 있어서는 變質을 否認한다 하더라도 國際的經濟交流를 통하여 統制 및 計劃의 方向에 있어서의 變質可能性을 고려하는 것이다. 특히 計劃의 方向이 빚어낸 試行錯誤와 經濟構造의 矛盾등은 필연적으로 計劃經濟 그 自体를 變質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共產主義者들의 經濟學辭典에 의하면 社會主義의 國民經濟制度는 社會主義的 大企業과 生産諸部門의 總체로 구성되며, 生産手段의 社會的所有에 입각하여 人間에 의한 人間の 착취를 배제하고 근로자의 福祉의 向上을 위해 生産力을 증대시키는 무한한 可能性을 추구하는 計劃經濟라고 定義하고 있다.<sup>1)</sup> 여기에서 資本主義體制와 다른 것은 「生産手段의 社會的所有」에 있으나 그 목적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福祉, 즉 國民의 福祉를 向上시켜야 하는데 있어서는 本質적으로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하면 共產主義이던 資本主義이던 궁극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인 國民의 福祉의 向上에 目標을

---

1) 코즈로프編 「經濟學辭典」 P. 169.



두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한히 발전된 共產主義와 무한히 발전된 資本主義는 그 격차가 없어져야 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資本主義에 있어서는 점차로 資本의 所有가 大衆에게 分散되어 大衆資本主義 ( people's capitalism ) 를 指向하게 되며, 共產主義에 있어서도 政治的獨裁로부터 分離되어 財貨와 근로의 선택의 자유가 인정될 때에 궁극에 있어 福祉의 向上을 기할 수 있다.

福祉란 不自由속에서는 전혀 추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本 論文의 結論部門은 共產主義下의 北韓經濟가 궁극에 있어서 도달할 수 있는 體制가 무엇이냐를 음미하면서 우리 體制에의 接近可能性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 第 1 章 北韓經濟体制의 現實과 問題點

### 1. 計劃經濟와 經濟發展段階

北韓의 經濟開發計劃 및 經濟發展階는 다음과 같이 4 段階로 区分할 수 있다.

第 1 期 社會主義体制準備期 : 1946 ~ 49

第 2 期 社會主義經濟基礎建設期 : 1954 ~ 60

第 3 期 自主路線採択 및 工業基礎 建設期 : 1961 ~ 70

第 4 期 社會主義工業擴張 및 經濟運營 調整期 : 1971 ~ 76

일반적으로 北韓의 經濟体制를 社會主義라고 부르고 있으나 北韓이 표방하고 있는 社會主義는 本質적으로 의미하는 社會主義와는 다르다. 랑게 ( O. Lange ) 나 라너 ( A. P. Lerner ) 등이 말하는 社會主義는 北韓의 体制와는 다른 民主的인 것으로 真正한 社會主義는 이러한 것이어야 한다.

北韓의 指導理念이 공식적으로는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입각한 階級없는 經濟社會를 指向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으나 근래에는 國際共產主義보다는 民族主義에 가까운 南韓을 認識한 中間의 高度의 國防을 토대로한 自給自足經濟 (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自主經濟와는 의미가 다르다 ) 를 指向하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2)

第1期에 있어서는 計劃經濟의 기초를 준비하며 生産手段의 初歩的인 社會化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1946年3月1日 土地改革으로 5町歩以上の 地主로부터 土地를 몰수하여 農民에게 分配하였고 8·15以前 日本人이 所有하던 土地를 國營農場으로 轉換하였다.

同年 6月24日 勞動法令으로 8時間勞動制를 實施하고 7月30日 男女平等權法令, 8月1日 産業國有化法令등을 실시하였다.

1947年2月 道, 市, 郡人民委員會代表者大會에서 47年度國民經濟計劃을 採択하였는데 이는 年度初에 당해년도의 生産豫定表를 작성하는 一個年計劃이었다.

1949년에는 2個年國民計劃을 세웠으나 50年の 6·25 남침으로 計劃이 中斷되었다. 1950년부터 53年7月까지 6·25 動亂으로 北韓經濟도 完全히 폐허화했으며 動亂後 1954년부터 56년까지 戰後國民經濟復旧發展 3個年計劃을 세우고 이때부터 「重工業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輕工業과 農業을 同時에 發展시킬것」을 결정하는 重工業優先主義를 택하였다.

---

2) 北韓의 經濟發展에 대한 4段階의 区分은 다음 諸氏의 見解에 따른 것이다. ① 全應烈, 南北韓의 國民所得의 計算方法의 差異點과 그 成長率, 1968. PP. 41~53 ; ② 同, 「北韓經濟의 計劃管理體制」 北韓經濟, 東西問題研究, 1973, P. 57 ; ③ 조순, 「北韓의 經濟發展과 外國援助」전계서, P. 25.

1957년부터 60년까지는 당초 國民經濟發展 5 個年計劃을 세우고 「民族經濟의 自立的土臺를 구축하며 國民의 衣食住問題를 기본적으로 해결한다」는 自給自足經濟를 목표로 했으나 計劃의 失敗로 인해 4년만에 終結한후 1961년부터 7 個年計劃을 세웠으나 역시 計劃의 未達로 인해 70년까지 이를 연장하여 사실상 10 個年을 끌었다. 現在는 1971년부터 76년까지의 6 個年計劃을 進行하고 있는 중이다.

第2期인 1954년부터 60년까지의 經濟計劃 및 經濟發展에 있어서의 특징은 重工業經濟를 推進하여 自給自足經濟를 이룩하려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 기간중 3 個年計劃과 5 個年計劃을 進行하였으나 計劃과 実績의 成果를 比較하기 보다는 重工業部門에 있어서는 기계공업 금속공업 등을 발전시켰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同期間中 千里馬運動, 工作機械새끼치기運動 등으로 勞動力強化가 추진되고 工業總生産에 현저한 기여를 하였다. 그 결과 1960년 機械工業의 生産計劃実行率을 重要製品別로 보면 프레스機械의 1,238%를 비롯하여 톨링머신 343% 등 工作機械工業에서는 圧倒的인 실적을 올렸고 이밖에 大部分의 수송기계, 농업기계공업에서 目標를 若干이나마 上廻했으며 다만 기계요소, 원동기, 산업기계등에 있어 目標를 훨씬 未達하였다. 특히 베어링 71%, 엔진 62%는 製作技術의 不足에 기인되며 이러한 要素部門의 未達로 중요한 機械 및 部品生産에는 未及하였다.

<表 1> 北韓機械工業主要製品의 計劃對実績比率 1960年

(단위: %)

部 門	製 品 名	實 績 比 率
機 械 要 素 工 業	베어링	71
工 作 機 械 工 業	선반	140
	드릴링머신	343
	프레스機械	1,238
	금속절전기	163
原 動 機 工 業	보일러	121
	엔진	62
輸 送 機 械 工 業	자동차	104
	자전거	102
農 業 機 械 工 業	農業機械	117
	트럭터	100
電 氣 機 械 工 業	변압기	121
	전동기	128
產 業 機 械	Excavator	78
	냉동기	138
	재봉기	86

資料: 世界貿易事典9. 共產圈編. P. 141.

第3期인 1961년부터는 重工業偏重政策으로 인한 輕工業의 發展不振을 만회하고 農工業間의 不均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計劃의 重點을 다소 변경시켰다.

1961年9月 勞動党第4次大会에서 採択된 7個年計劃은 重工業뿐 아니라 輕工業部門에서 生産性を 높이면서 自立的工業國으로 發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國防에의 過多한 投資로 計劃에 차질이 생기자 1966年 10월 勞動者代表者會에서 이를 3個年延長하고 經濟國防並進策이라는 名分을 세워 經濟建設의 不振을 期間延長으로 補完하였다.

7個年計劃의 目標을 보면 國民所得을 2.9倍 工業生産을 3.2倍 生産手段生産은 3.2倍 消費財生産은 3.1倍로 하여 工業生産이 國民所得成長보다 월등히 높은 計劃을 세웠고 消費財生産보다 生産財生産에 投資하였다. 各部門의 具體的計劃도 把握될 수 있으나 本稿의 重點的인 部門이 아니므로 생략한다.

아무튼 第3期の 計劃運營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노출되었다.

첫째 生産財는 目標보다 上廻하여 3.7倍의 實績을 보인 반면 消費財는 2.8倍에 그쳐 兩者의 不均衡이 甚하게 되었다.

이러한 不均衡을 해소하기 위하여 地方工業을 급속히 建設하여 消費財生産을 위한 全國民運動을 전개하였으나 그 결과 國民經濟는 重工業과 國防生産을 中央에서 담당하고 消費財는 地方에서 責任을 지게 되어 二重經濟構

造가 형성되었다.<sup>3)</sup>

둘째 生産財生産의 계획초과달성은 사실상 經濟財의 生産보다도 軍需品生産에 관계된 것이다. 그 결과 生産財와 消費財間的 産業 聯関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軍輸品을 위주로하는 重工業偏重을 더욱 격화시켜 당초 輕工業發達도 아울러 꾀하려던 計劃의 目的을 포기 하게 되었다.

셋째 重工業이 軍需産業에 편중하였으므로 機械工業은 치중하면서도 化學工業의 不振相이 격심하다. 이는 이미 여러 문헌을 통하여 제기 되었으므로 列挙하는것은 생략하겠으나 1970년 1월의 金一報告에서 各種化學製品의 不足이 지적되고 있다.<sup>4)</sup>

넷째 消費財生産의 不足과 함께 國防産業에 치중한 결과 國民의 生活水準에 지나치게 희생을 강요하였고 그 결과 全般的으로 生産意欲의 감퇴와 成長意欲의 低下가 커다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

3) 이것은 全應烈氏의 見解를 引用한 것이다. 그러나 中央集權的 共產國家가 地方分權을 挾하였다는 体制的인 側面에서의 重要性에 비추어 이를 引用한 것이다. (全應烈 前掲書, P. 67. )

4) 그러나 輕工業과 重化學工業을 並進하고 있는 우리의 工業化方式에 비추어 機械工業에 우선하고 化學工業을 현재 착수하는 단계에서 共產圈國家들의 對中東戰略을 고려할 때에 資源問題와 관련하면 새로운 문제를 發見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共産國家가 직면하는 문제라고 보겠으나 특히 北韓에 있어서는 計劃의 國家目標置重에 의하여 住民生活에는 전혀 不考慮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끝으로 共産國家로 부터의 多少의 經濟援助가 있었으나 대부분 物物交換貿易形式으로 交換되었고, 全般的으로는 이른바 自給自足的 封鎖經濟를 挾함으로써 經濟開發에 커다란 차질을 초래하였다.

資源不足한 開發途上國에서 封鎖體制를 취한다는 것은 開發을 포기하는 것과 거의 같은 것이며 우리나라의 歷史에 있어 대원군의 鎖國政策이 얼마나 큰 失策이었는데가를 보아 알 수 있다.

1970년 11월 第5次全黨大會에서 採択된 6個年計劃을 중심으로 1971년 이후의 第4段階가 進行되고 있는 것이 現在의 北韓이다.

6個年計劃에서는 國民所得 1.8倍, 工業生産 2.2倍 生産手段生産 2.3倍, 消費財生産 2倍로 目標되었다. 물론 細部目標에 대한 言及은 本論文의 主題가 아니므로 생략하겠으나 6個年計劃의 性格과 問題를 간단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7個年計劃의 기초가 중·소의 이념분쟁을 계기로 自主路線을 택한 결과 原料部門에 가장 큰 애로에 직면하였으므로 6個年計劃은 原料의 自給化에 큰 目標을 두었다. 工業部門에서는 적어도 60~70% 이상을 國産化할 수 있도록 原料自給에 重點을 두었다.

둘째 6個年計劃은 年成長率이 과거의 計劃보다 낮다. 이것은 과거 7個年計劃의 失敗에 기인되는 한편 과거에 工業爲主의 成長



에 비하여 다소 農業投資가 증가되고 있는 것에도 관련이 있다.

한편 6 個年計劃의 추진에 있어 北韓이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은 技術者를 중심으로한 勞動力不足 ① 石油化学工業의 不振 ② 社会間接資本의 不足 특히 輸送力不足등이며 이러한 部門의 開發은 技術, 原料, 資本등의 모든 面에 있어 종래와 같은 自給自足方式의 封鎖體制로써는 도저히 추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 2. 計劃管理體制와 經濟成長의 차질

計劃經濟가 非計劃經濟보다 効率的인 經濟體制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르크스 經濟學을 信奉하는 者들의 公同된 思想이므로<sup>5)</sup> 北韓이 計劃經濟를 扞하고 있는데 대해 의문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計劃經濟가 과연 効率的이나 하는 것과 計劃經濟下에서의 經濟成長이 그들이 믿는대로 無限한 것인가가 문제이다.

北韓의 經濟計劃과 그 執行狀況에 나타난 특징은 다른 어느 共產國家보다도 더 철저한 行政式中央集權體制라는 점이며 이 中央集權體制는 50年代後期에 이며 完成된 것이다.

北韓에서는 이미 前節에서도 언급한 國民經濟計劃이 單一的인 計劃이며 이는 內閣에 소속된 國家計劃委員會에서 작성한다.

---

5) O. Lange, Papers in Economics and Socialogy 1930-1960.  
Oxford Pergamon Press, 1970.

國家計劃委員會는 中央計劃機構로서 各主務部署를 두고 있다. 이委員會는 長短期經濟展望 및 經濟計劃案을 作成하고 內閣의 各省과 各委員會와 地方計劃機關이 작성제출한 經濟計劃案을 조정하여 最終案을 작성한다.

國家計劃委員會의 산하에 道, 直轄市, 市 및 郡計劃委員會가 있다. 이는 國家計劃委員會의 地方出張所形態로 地方에 상주하면서 部門別管理를 담당하는 各委員會의 計劃을 연결조정하여 실시한다 6)

이들의 具體적인 기능에 대해서도 本論文에서는 省略하겠으며 生産計劃과 管理體系에 대해서만 例示하겠다.

生産計劃은 指令的計劃指標와 非指令的指標로 区分되며 指令的指標에는 生産量, 從業員總數, 賃金總額, 利潤 등이 있고 工業管理體制的 改善에 따라 指令과 非指令指標가 달라진다.

生産主体인 企業은 國營企業과 協同組合企業뿐이며 國營企業은 中央企業과 地方企業으로 나누어 진다. 中央企業은 주로 基幹産業, 軍需産業, 大規模消費財産業과 農場 및 牧場이 있다. 이중에서 消費財産業과 農場 및 牧場은 地方企業도 있으며 道, 市, 郡이 經營한다.

이와 같은 北韓의 計劃管理體制를 要約하면 社會主義原則에 입각한 管理體系下에서 中央機關은 物動計劃을 立案하여 資源의 開發,

---

6) 共産圈問題研究所, 北韓總覽, P. 315.

物資의 動員 및 勞動力의 補充 및 轉用, 資金의 配分등을 統制實施한다. 이러한 官僚主義的組織下에 各企業에서는 中央機關의 劃一的인 生産指標와 支配人責任下의 獨立採算制에 依한 生産活動이 이루어지고 計算價格에 의한 公定價格制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中央集權的管理體制는 國民經濟가 점차 발전됨에 따라 産業構造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分權的管理體制로 轉換되지 않을 수 없다. 北韓은 後進的인 農業國으로부터 立地條件에 따라 급속히 社會主義工業國으로 轉換되었고 初期에는 利潤追求를 위한 經濟的刺戟이 없더라도 社會主義라는 精神的刺戟을 통해서 物質的 生産能力의 擴大에 그런대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擴大再生産을 통하여 産業組織이 복잡해지고 中央集權的隸屬制度下에서는 精神的刺戟을 중심으로 하는 管理體制만으로 묶어 놓을 수가 없게 되었고 현재에는 이것이 중대한 애로로 등장되고 있다. 製品의 品質이 粗惡하고 低質인 것은 中央集權的 管理體制의 硬直性에 기인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6個年計劃에서는 종래의 量産體制로부터 質的向上을 위하여서도 成長의 鈍化를 감수하게 되었고 한편 質産體制로의 轉換은 中央集權的管理로부터 分權的管理體制로 移行을 要求하였다.

그리고 分權的管理란 결국 中央政府가 企業에게 管理權을 移讓하는 것을 의미하며 企業의 創意와 自主性이 生産能率의 向上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中國에 있어서는 企業의 創意가 무엇에 刺戟되어 발생되는냐의 문제에 봉착한다. 지금까지와 같이

獨立採算制下에서 責任指令과 黨과 首領을 위한다는 精神的刺戟으로  
는 品質向上을 포함한 生産能率의 向上에는 크게 기여할 수 없으  
며 企業利潤의 追求와 製品의 價值體系의 確立에 의하지 않고는 經濟  
不可能한 것이다. 여기에 計劃管理體制下的 生産과 經濟成長의 限界性  
界性を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計劃經濟에 있어서 指令된 生産計劃의 蹉跌과 賃金基  
金を 上廻하는 賃金支給으로 인하여 消費者物價가 上昇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969년 소련의 경우에도 消費者物價가 3.5% 上昇  
했고 1970년에 유고슬라비아도 1.8% 上昇하였던 것은 이러한  
實情에 기인되는 바<sup>7)</sup> 北韓에서도 大体로 年間 2~3%의 消費  
者物價 上昇率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된다.<sup>8)</sup>

이와 같이 消費者選擇에 입각한 品質向上이 否認되는 가운데서  
配給制度和 計算價格에 입각하면서도 消費者物價가 上昇되는 현상은  
計劃의 蹉跌에 기인된 것이다.

### 3. 封鎖體制와 經濟成長의 限界性

스타린型의 社會主義經濟體制의 또 하나의 요소는 自給自足の  
原則에 입각한 重工業先導의 産業構造의 구축에 있다. 이론적으로

---

7) 日本外務省 經濟局編, 世界經濟の課題, 1971. PP. 501~508.

8) 車輪權, 「北韓財政의 機能」, 北韓經濟, 1973. P. 12.

생각하면 社會主義體制라고 해서 自給自足を 주장할 이유는 없다.

自給自足이 社會主義의 本質이거나 그와 관련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스탈린이 당시의 소련經濟에 대해 自給自足を 주장하게 된것은 그럴만한 理由가 있다. 당시 1930年代의 소련經濟는 資本主義國家群에 둘러 쌓여 부득이 「一國에 있어서의 社會主義」를 표방하게 되었고 그것이 經濟的側面에서 自給自足の 原則을 발생시켰던 것이다. 9) 그러므로 北韓과 같이 資源이 不足한 國家가 더우기 現代國際社會에 있어서 經濟交流를 封鎖하는 自給自足の 原則을 採択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무리한 점이 많다.

특히 1960年代에 와서는 中蘇의 理念紛爭의 틈바귀속에서 소련에의 의존을 지양하고 中立路線을 취하기로 하고 中共에 追從하기도 하였으나 60年代 後期부터는 다시 中共과의 關係가 惡化되고 소련과의 關係가 好轉되었다가 70年代에는 다시 中共과의 關係를 好轉시키는 등 對 中蘇外交路線이 갈팡질팡하면서 對外經濟協力을 變動시키게 되었다.

이와 같은 北韓의 소련 및 中共에 대한 主從關係의 變動은 經濟計劃 및 經濟發展에도 變動과 蹉跌을 招來하는 요인이 되었다.

대체로 앞서 고찰한 4段階의 時代的 区分에 따라 北韓의 對中

---

9) A. Erlich. "Stalin's views on Soviet Economic Development" G. R. Feiwel ed, New Current in Soviet-Type Economics, 1969, PP. 21-40.

蘇經濟協力關係의 변천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第1期에는 對蘇 一辺倒의 外交政策을 推進하였으나 第2期에 들어와 1956년부터 中蘇의 理念紛爭을 계기로 일단 中立政策을 취하였다. 第3期の 初期에 속하는 1962年~66년까지의 中蘇兩國의 鬭爭的 對立期에 는 비교적 中央에 追從하였으나 1966年8月12日 自主路線을 선 언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第4期에는 前半期인 1966年~69年까지는 비교적 소련과의 關係를 好轉시켰었고 70年이후에는 다시 中共關係를 好轉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外交路線의 변동과 함께 經濟援助도 달라졌다. 文獻에 의하면 6.25 動亂前에는 소련으로 부터 5,300萬달러를 차관으로 얻은것 뿐이었으나 動亂中에는 全共產國家로 부터 3억753萬달러의 無償援助를 받았고 계속해서 戰後3個年復旧計劃期間에 5억5,885萬달러의 無償援助와 第1次5個年計劃期間(1956~60)에도 全共產國家로 부터 3억9,940萬달러의 無償 및 有償借款을 도입했다.

그後 7個年計劃前半期에는 對中共關係好轉으로 1억6,200萬달러 中共借款을 얻었고 後半期에는 2억2천만달러의 借款을 소련에서 얻었다. 최근의 6個年計劃期間中에도 상당한 借款을 소련과 中共으로 부터 얻고 있으나 점차 經濟協力の 不足으로 인하여 自由陣營과의 協力關係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 10)

---

10) 조인석, 「共產諸國의 對북과 經濟援助」, 北韓, 1972年3月.

中・蘇의 理念紛爭과 이에 대한 北韓의 태도에 대해서는 北韓의 經濟体制의 變質可能性을 음미하기 위하여 몇가지 더 검토되어야 하겠다.

첫째로 理念紛爭은 아는 바와 같이 이른 바 敎條主義와 修正主義의 對決인데 1961年10月 소련 共産黨 第22次全黨大會를 계기로 中・蘇의 紛爭이 노골화되었고 北韓은 反修正主義그룹에 가담하였던 것이다.

둘째로 같은 무렵에 소련은 共産黨全體의 經濟를 綜合하여 이른 바 相互經濟協力機構인 코메콘 ( Comecon ) 을 設立하고 國際間分業을 구상하였으며 北韓이 이 會員國은 아니었으나 같은 구상에 의해 原料를 開發하여 소련에 수출할 것을 권장하였으나 北韓은 여전히 自給自足の 原則을 고집하여 소련과 反目케 된 것이다.<sup>11)</sup>

그리하여 1962年 부터 中共에 접근하였으나 中共의 大躍進政策의 事後收拾에 몰두하였기 때문에 北韓에 대한 援助가 充分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sup>12)</sup> 마침내 1965年2月 코시긴首相의 평양訪門을 계기로 소련과의 關係가 好轉되고 中共과의 關係가 惡化된 것이다.

---

11) J. A. Kim "The Peals of Socialism in North Korea: The Five and Seven Year Plan" J. S. Prybyla ed., Comparative Economic System, New York, 1969. P. 420.

12) アジア經濟研究所, アジア動向年報. 1970. P. 61.

이러한 現實은 北韓이 한때 反修正 및 自給自足主義를 고집하기는 하였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原則의 지속이 곤란하게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自給自足主義의 原則은 長期間貿易政策에 있어 封鎖體制를 면치 못하였고 1969年 現在 輸出入合計 696百萬달러의 貿易規模에 不遇한 것이다. 이것은 同年의 輸出이 367百萬달러, 輸入이 389百萬달러로 대체로 輸出內輸入의 原則을 유지해 왔음을 보여 주는 것과, 특히 輸出入構造에 있어 輸出의 71.5% 輸入의 74%가 對共產圈貿易이고 對自由圈輸出入은 각각 23.4%와 24.6%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의 貿易政策이 「自主權을 尊重하고 我國과 經濟的組帶를 가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社會制度가 相異한 모든 國家들과의 貿易 및 通商外交關係를 발전시켜나간다」<sup>13)</sup>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北韓의 貿易政策의 몇가지 특징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自主性의 強調에서 오는 소극적인 貿易政策이다. 이른바 植民地的인 不平等關係를 탈피하여 互惠 均等의 自主性原則이 강조되고 있는데 對共產圈貿易에 있어서도 이것이 강조됨으로써 貿易을 消極化시켰다.<sup>14)</sup>

13) 日朝貿易會, 日朝貿易の手引書

14) 高瀬浄「北朝鮮の經濟建設 對外貿易」, 世界經濟評論 1970.

10. P. 33-34.



이것은 北韓이 外國貿易에 관하여 內外에 밝힌 政策 10大政綱에도 반영되고 있다. 즉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는……自主的 民族經濟를 건설하는 路線을 계속견지하여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原則과 完全한 平等 및 互惠原則을 바탕으로 他國과 經濟關係를 맺고 外國貿易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둘째의 특징은 철저한 보호무역주의에 입각한 兩國間 바터制를 採択하고 있는 點이다.

그러나 이보다도 가장 주요한 것은 政經不分離의 政策을 기본적으로 택하고 있다는 點이다. 北韓의 貿易政策은 그들의 영향력을 최대한 침투시킬 수 있으며 反帝國主義的主張을 고무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貿易은 經濟政策이라기 보다도 政治的意圖에 뒤따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6)

그러나 이러한 政治的姿勢는 交易對象地域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최근에는 東西關係의 全般的動向에 따라 資本主義國家에 대해서는 經濟的利害關係에 입각하여 오히려 政經分離를 主張하는등 어느 정도의 轉換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貿易機構나 貿易構造에 대한 論議는 本論文의 범위에 비추어 생략하고 최근 南北韓의 긴장완화를 계기로 日本에 대한 貿易擴大方向에 대해 검토하겠다.

---

15) 金貞世, 「北韓의 對外貿易」 北韓經濟, 1973., 9. P. 120.

1971年의 南北韓赤十字會談을 계기로 韓半島의 긴장완화에 따라 金日成을 방문한 日本 社会党的 아카마스副委員長, 미노베 東京都知事와 그밖의 言論人에게 日本과의 交易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 계기가 되고 있다.

본래 日本과 北韓의 貿易은 1956年 부터 시작되었고 당시 日本政府는 韓國에 대한 배려 때문에 日朝間의 直接貿易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中共의 大連을 경유하여 日中貿易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16)

그러나 1958년 5월 日中貿易의 中斷以後에는 홍콩을 경유하여 貿易이 이루어졌고 1961년 부터는 直接去來가 가능하게 되었다.

北韓은 형식적으로는 日本과 國交를 수립하는 데 있어 韓日間條約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日本과의 各種交流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各種生産設備를 輸入하는데 있어 西歐諸國보다 가까운 日本에서 購入하는 것이 유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韓國政府의 요청으로 北韓과의 人的交流등이 거부되었고 資本去來도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商品貿易에 있어 1961년 北韓과 日本의 直接去來를 시작한 이후 10년간 日本의 輸出은 4.7배 輸入은 8.7배 輸出入合計로는 6.4배로 擴大되었고 1971년 현재 日本의 對北韓輸出이

---

16) 日朝貿易 第61号, PP. 8~9.

28백만 달러 輸入이 29백만달러 合計 57백만달러로 年平均 20.6%씩 伸張되어 왔다.

日本과 北韓의 貿易(日朝貿易)은 지금까지 파운드貨를 決済手段으로 使用하였으며 1966년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1967년 11월 파운드貨의 平価切下로 価値의 安定性이 문제되었다.

1968년 6월 日朝貿易會와 朝韓國際貿易促進委員會 사이에 合意書를 통해 파운드貨를 決済手段으로 하되 스위스의 프랑貨로 二重表示하도록 하였다. 다시 1971년 8월의 金兌換停止와 國際通貨体制의 동요로 第三國通貨 대신 自國通貨主義을 택할 것을 주장하게 되었으나 日本과 北韓이 正式國交國이 아니기 때문에 自國通貨를 表示하되 支払手段은 파운드貨를 使用하도록 검토되었다.<sup>17)</sup>

아무튼 北韓의 對日貿易에 대한 희망은 오래전부터 강력하였다. 韓國動亂이 끝난지 1년반인 1955년 2월에 北韓의 南日外相은 당시 日·朝交回復과 社會主義國家와의 貿易增進을 내걸고 있던 하도야마內閣에 대해 貿易과 文化交流, 기타의 日朝關係의 수립과 발전을 위한 모든 문제를 구체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 성명은 당시 中共과 마찬가지로 日本의 일부 民間業界를 자극하였으나 韓國側의 항의를 이유로 日本政府는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南北對話를 계기로 北韓의 日本에 대한 貿易增進의 희망은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17) 日朝貿易, 第61号. PP. 22-23.

1971년 9월 16일 평양을 방문한 日本社会党 副委員長에게 金日成은 「우리는 인접국인 日本으로 부터 物資를 買入하고 우리의 풍부한 原資材를 日本에 팔고 싶다.

그러나 사또内閣은 우리 技術者조차 入国시키지 않으려 하고 있다. 기술자의 入国도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상품을 살 수 있겠는가 日本과 우리나라가 正常的인 貿易關係를 유지하려면 이러한 사또内閣의 敵視政策이 止揚되어야 한다.<sup>18)</sup> 고 力說하였다.

그는 9월 25일 아사히新聞의 고토編輯局長에게도 「日本이 우리나라에 대한 敵視政策을 고쳐나간다면 平等과 内政不干涉, 相互主義의 原則에 따라 友好關係를 맺을 수 있으며, 우리는 이전 부터 이런 方針을 갖고 있다. 經濟關係를 보더라도 友好關係를 맺으면 日本에게도 有利하고 우리에게도 有利하다. ……貿易, 自由往来, 文化交流, 記者交流등의 實現을 우리는 희망하고 있다」<sup>19)</sup> 고 하였다.

그는 또한 10月31日 머노베東京知事와의 會談에서도 구체적으로 对日貿易增進에 대한 所望을 밝히고 電力供給強化를 위한 發電所新設, 石油化学 콤비나트建設, 鮮眞의 冷凍設備, 消費財의 生産增強을 위한 日本의 技術협력을 요청하였다.<sup>20)</sup>

---

18) 日朝貿易 第60号.

19) 朝日新聞, 1971. 9. 27.

20) 日本經濟新聞, 1971. 11. 1.

이와 같은北韓의 태도와 관련하여 최근 日本의 財界에서는 中共과의 国交正常化로 이끌었던 政經分離의 原則에 의한 經濟交流方式을 北韓에 대해서도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조만간 財界를 代表하는 大規模의 經濟使節團을 北韓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1972년 1월 北韓을 訪門한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代表團과 日朝貿易會代表團은 北韓側의 國際貿易促進委員會와 貿易促進에 관한 合議書에 서명하였고<sup>21)</sup> 1976년에는 현재 去來額의 6~8배에 달하는 貿易規模로 擴大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과제를 처음으로 論議하게 되었다.

이것은 과거 16년의 日朝貿易의 歷史에서 볼 수 없었던 일이다. 이 合意書에는 日朝貿易의 意義와 目標, 主要去來品目, 設備額의 長期延払, 상품 전람회의 상호개최, 技術交流의 促進, 貿易代表團 및 기술자의 상호왕래, 貿易代表部의 相互設置등의 모든 조치가 들어 있다.

그후 日本은 7月 13日 외무성을 통하여 앞으로 北韓技術者의 入國問題는 前進的姿勢로 검토하겠으며 商談에 필요한 技術者의 入國問題를 거절할 理由가 없다고 태도를 바꾸었다. 8月 22日에는 나카소네通産相이 北韓에 대한 輸出入銀行資金에 의한 融資를 경우에 따라 적절히 고려하겠다고 發言하였고, 9月 25日에는 法務省은

---

21) 日朝貿易, 第 63号, PE 2~3.

金錫鎭이 이끄는 北韓經濟使節團의 日本入國을 許可함으로써 金日成의 宿願이던 人的交流의 실마리가 열린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동향은 그동안 封鎖體制下에서 經濟成長에 制約을 받아온 北韓에 대해 새로운 발전단계양상을 빚어 낼 可能性을 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日本을 비롯한 自由陣營과의 交易의 增進은 北韓의 經濟體制自体에도 本質적으로 變化를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第 2 章 北韓經濟体制의 變質可能性

### 1. 國際情勢의 變化와 北韓

#### 가. 共產主義体制의 理念과 그 變質

마르크스 레닌主義와 스탈린型的 社會主義体制은 1953년 스탈린死亡後 점차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1956~58년에 걸쳐 폴란드, 東獨, 헝가리 등 東歐共產圈의 一部에서는 점차적으로 計劃의 自由化, 企業의 自律化, 利潤制度의 導入 勞動에 대한 物質的要因의 強化, 價格制度의 改革등 상당한 体制의 變質이 이루어졌고 이들 國家들은 經濟計劃体制을 中央集權的인 体制로부터 地方 또는 下部分權的体制로 移行하였다. 특히 改革의 정도가 높은 유고슬라비아와 헝가리는 상당한 정도의 市場經濟를 가미한 計劃体制을 採択하게 되었고, 그밖의 東歐諸國도 알바니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中央集權計劃体制을 벗어나서 下部分權的計劃体制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sup>22)</sup>

1956년 2월에는 소련 共產黨 第20次全黨大會에서 후루시초프가 스탈린格下와 平和共存論을 제창한 것을 계기로 중소 理念紛爭이 시작되고 1961년 11월 소련 共產黨 第22次全黨大會에서 알바니아問題를 둘러싸고 中·蘇代表團이 격돌한 이후에는 中·蘇兩國의 抗爭的 對立으로 번지게 되었다.

---

22) J. Wilezowski, The Economics of Socialism, London, G. Allen and Unwin, 1970. PP. 22~24.

이와 같은 中·蘇의 紛爭은 共產主義理念의 一元性이 決定的으로 도전받게 만들고 共產圈의 主軸을 동요시키게 하였다. 즉 中共의 소련修正主義에 대한 비난으로 共產主義世界의 一元性이 파괴되었고 共產圈의 단결력을 약화시켰으며 드디어 全世界的으로는 미·소의 兩極化体制를 弛緩시켜 多極化体制로 변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次大戰後 美·蘇의 兩極体系가 確立된 것은 무엇보다도 自由와 共產의 理念對立과 이에 따라 大小國을 막론하고 兩陣營으로 分離 對峙시킬 수 있는 理念을 통한 國際的兩極化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美蘇의 兩國을 兩極의 代表로 하여 각각 同質의 理念을 갖는 나라들을 이에 結束하여 東西의 블럭을 形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共產陣營에 있어 中共의 對소련비난과 對立은 共產圈의 宗主國에 대한 理念의 一元的解釋을 포기하게 되고 劃一的純粹性을 내걸던 國際共產主義의 理念이 多樣化됨에 따라 共產主義는 世界人民의 唯一한 結束手段으로 利用되기 보다는 오히려 民族과 國家利益을 추구하는 手段으로 變質된 것이다.

이와 같은 東西블럭의 內的分裂은 西方側에서도 프랑스 獨自路線을 굳힌 이후 브란트의 東方政策에 이르기까지 反共으로 단결된 自由世界의 路線에도 變質을 초래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東西兩陣營의 兩極化 또는 理念對立에서 多極化 또는 國家利益을 추구하는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國際情勢의 相互作用을 검토하기에 앞서 共產主義体制에 있어서의 變質過程을 보다 구체적으로



로 검토하겠다.

共産主義의 宗主國이었던 소련은 스탈린의 格下後 후르시초프가 내세웠던 ① 資本主義諸國과의 平和共存 ② 民族解放鬪爭의 支援 ③ 社會主義諸國의 團結強化라는 外交政策은 브레즈네프-코시킨의 政權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었으나 브레즈네프時代에는 國際秩序의 多極化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여 소련 지도층들은 平和共存의 理論을 한층 신축적이고 現實主義的인 方向으로 運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中共을 인식한 소련은 1962년 쿠바위기에서의 후퇴이후 美國과의 接近을 통해 美蘇優位의 協助體制를 유지하면서 對유럽은 現狀維持에 만족하고 對아시아는 보다 치밀하게 中共을 포위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이것은 印度, 파키스탄에 進出強化와 對아랍支援外交에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美蘇兩國의 超強國임을 다짐하는 協力體制와 安定된 對유럽의 現狀維持政策의 틈바구니에서 東西獨의 유엔同時加入을 초래한 것은 平和共存과 現實主義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對아시아政策은 유럽과 같이 피차에 움직일수 없는 歷史的事實로 固定된 安定된 狀態에 있지 않고 印度支那 中東 대만등에 있어서 앞으로도 變動可能한 不安定한 狀態에 있으므로 한편으로는 中共을 인식하면서 한편으로 美國과의 關係를 고려하는 가운데서 지극히 신축성 있는 政策을 펴나갈 것이라는 것도 平和共存과 現實主義의 原理에 따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韓半島의 事態는 이미 固定된 現實속에서 UN 同時加入을 초래케한 東西獨의 경우와는 달라 變質可能性을 내포한 南北韓의 平和對決을 지속시키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소련은 한편으로 中共을 인식하면서 미국과의 平和對決을 지향하는데 있어 몇가지의 外交戰略의 變化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첫째 포면상 對中共의 對立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1970년 9월 中共創設記念日에 最高會議議長의 사절을 파견하는 등 1968년 이후 惡化되었던 中蘇關係를 表面上으로도 改善시키고 더 이상의 共產圈의 分裂을 막아보려는 努力을 보였다.

둘째 소련의 對아시아進出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하고 있으며 아시아에 있어서는 理念보다 國家利益을 우선하기 때문에 소련의 理念을 移植시키려던 過去의 政策과는 달리 實質적인 유대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23)

이것은 한편 미국의 對아시아지역후퇴를 강요하면서 그에 따르는 힘의 真空을 가능하면 自身이 메꾸면서 中共의 進出을 저지하려는 데에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닉슨大統領의 中共訪門以後 소련은 아시아지역에 대한 강력한 外交政策을 빌려 北韓, 越盟, 暹글라데쉬와의 援助條約과 對필리핀修交를 成功시켰고 아시아集團安保

---

23) 이명식, 「소련의 對아시아政策」 國際問題 Vol 2. P. 6.

体制案을 다시 제창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極東地域에 대해서는 美·中共의 접근으로 고립감을 느끼게 되어 対日本接近을 예상외로 가속화시키고 있음이 注目되며 시베리아共同開發, 平和條約 및 北方領土問題등 어려운 問題에 대해서도 유연한 자세로 바뀌었다.

한편 최근 韓國人の 소련入國許容 등 韓國에 대한 관심도 얼마나 증대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련의 對아시아政策의 可變性은 한편으로 協力關係와의 二律背反的인 問題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하여 최근 中東戰과 아랍諸國의 石油資源武器化와 관련하여 兩者拮一的인 限界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말하면 對아시아政策의 可變性 때문에 世界情勢에 있어서의 安定性을 침해하느냐 아니면 世界情勢에 있어서의 平和共存의 安定化를 위해 對아시아政策에 있어서의 現狀維持에 의한 安定性을 택하느냐의 보다 明白한 政策方向이 선택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가하면 中共의 對外政策도 現實主義的으로 變質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소련의 體制變質에 대해 修正主義라고 비난하면서 反旗를 들었던 中共이 오랜동안의 竹의 帳幕을 열고 自身을 侵略者로 낙인찍었던 유엔에 加入하고, 그들의 견해로는 제국주의의 宗主國인 美國大統領을 초청하는 등 70년대의 活潑한 現實外交는 상상을 벗어난 變質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中共의 外交政策의 變質은 對內 對外의 要因에 의해 성숙된 것이다.

對內的으로는 1960년대 초기에 활발했던 周恩來外交가 文革以後 일시 후퇴되었으나 1969년 九全大會를 계기로 다시 毛一週體制가 安定되자 周恩來의 現實主義的인 外交가 再開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對外的으로는 첫째로 소련과의 國境紛爭이 現實的인 契機가 되었다. 특히 소련이 취하고 있는 印度와 日本을 포함한 對아시아政策은 中共의 安保에 위협이 되었다. 이러한 소련의 對中共包圍政策에 대한 응수로 나타난 것이 미국과의 접근을 비롯한 파키스탄, 北韓, 東歐에 대한 友好增進등 現實外交의 계기가 된 것이다.

특히 격변하는 國際秩序의 再編成속에서 現實性 없는 對決보다는 對話에 참여하는 것이 現實的이기 때문에 유엔에의 加入을 서둘렀고 世界情勢의 多極化秩序에 적응하기 위하여 종래의 敎條主義的 理念의 순수성에 집착하던 고무적外交姿勢를 止揚하고 國家利益을 위한 現實外交를 다시 찾게 한 것이다.

이제는 「人民對 人民」 「同僚對 同僚」라는 理念中心의 世界觀보다 「國家對 國家」와 「政府對 政府」를 찾는 現實的國家觀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만 2次大戰前의 오랫동안의 中國大陸에의 侵略을 상기하는 中共의 입장에서 日本의 軍國主義的危險을 아직도 인식하고 있는 것도 對아시아政策에 있어서의 變質의 한 要因이 되고 있다.

理念重視에서 現實重視로 눈을 뜨고 보면 中共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충돌보다는 소련과의 紛爭이 훨씬 더 중요한 問題이며, 과거

의 歷史속에서 日本에 대한 不信感을 갖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므로 그들이 美國大統領을 초청하고 닉슨行政府와의 紐帶를 갖으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世界情勢의 變動속에서 北韓은 과연 理念보다 現實에 치중한다면 韓半島에 있어서의 民族觀과 國家觀을 어떻게 다시 정립해야 하며 平和觀과 統一觀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아직도 現實보다 理念에 우위를 둔 武力統一을 手段으로 택해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 사실상 金日成의 唯一體制에 있어 이러한 變質을 찾아 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問題이기도 하다.

어쨌든 北韓의 對外姿勢는 지금까지 인접된 共產大國인 소련·中共과의 관계와 金日成自身の 對南韓戰略에 의하여 維持되어 왔다.

따라서 설사 金日成의 對南韓戰略에는 變動이 없다하더라도 소련과 中共의 위와 같은 對外政策의 變動이 전혀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 할 수는 없다.

北韓은 共產圈의 兩大支柱인 中蘇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므로 兩國에 대한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나 兩國의 오랜 紛爭의 틈바구니에서 生存을 위한 교묘한 外交를 취해야 했다. 1956년 中蘇紛爭初期에는 巨人들의 격돌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인 中立路線을 취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中蘇間의 力学關係를 利用하여 國利를 증대시키려고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自主路線을 취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北韓의 外交路線의 變化는 지금까지 6段階로 分析되

고 있다.

第1段階는 1948년 부터 54년까지로 對소一辺倒이었고 그 활동 범위가 소련과 東歐圈에 국한되었다.

第2段階는 1955년 부터 61년까지로 점차 中立의態度를 취하면서 對中立国外交를 강화했다.

第3段階는 1962년 부터 65년까지로 中共에 편중되었다. 中 소 理念紛爭이 격화되자 北韓은 스탈린 格下運動에 反對하는 中共側에 加勢하면서 소련에 背信하였다.

第4段階는 1966년 부터 69년까지로 이시기에는 北韓의 外交政策에 一大混亂을 이르켰다. 소련의 經濟協力이 없이는 經濟的파탄을 면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소련에 접근하였고 中共은 文化革命의 進行으로 紅衛兵이 벽新聞에 金日成을 비난하는 분귀를 써 對 中共關係는 惡化되었다.

第5段階는 70년과 71년인데 中共의 周恩來가 평양을 다녀간後 이른바 自主路線을 내걸고 소련과 中共에 대해 출달이기 式의 外交를 전개하면서 東歐 및 中立國에 대한 多辺外交를 전개하였다.

第6段階는 72年以後로써 東西의 解氷期를 맞이하여 西方側을 인식하는 現實主義的 外交政策을 指向할 것인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24)

---

24) 李基遠, 「世界政治 속의 北韓의 位置」, 北韓, 1973. 12.

PP. 254 ~ 255.

최근에는 中共의 對美接近과 소련의 對日關係改善氣運등 급변하는 多極化世界속에서 北韓의 外交政策도 基本的으로는 方向轉換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對美戰略의 修正이 불가피해 졌다. 「프에블로호」납치 및 EC-121 機격추사건등 美國에 대해 극도의 敵對關係를 유지했던 과거와는 달리 금년 1월 金日成은 요미우리新聞과의 기자질문을 통해 ① 韓國에서의 美軍撤收前이라도 南北韓相互不可侵 또는 平和協定締結을 시사했고 ② 南北의 政治會談再開를 제의하기에 이르렀다.<sup>25)</sup>

이보다도 美中共의 關係개선과 때를 같이 하여 南北韓의 7·4 共同聲明에 이르기까지 비록 우리측의 要求에 응하는 受動的인 것이지만 對話의 길을 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정세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금년들어 一時 對話의 中斷이 염려되었으나 「키신저」의 中共再訪門以後 再開되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中소의 方向轉換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北韓의 外交政策에 있어 對美戰略보다도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對日戰略이다. 北韓의 입장에서 볼 때 美國의 韓半島에 대한 關係는 비교적 간접적일 수 있고 세력균형관계가 주된 것이 되겠지만 日本의 경우는 政治 經濟全盤에 걸쳐 利害關係를 갖는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東西의 對立이 東西歐에

---

25) 読売新聞, 1973. 1. 10.

있어서와 같이 現實化된 安定狀態에 있기보다는 아시아에 있어서는 安定化指向의 可變的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제 아시아에서 一役 맡아야 할 日本에 대한 관심의 대단할 것은 이해 할 수 있다.<sup>26)</sup>

이것은 이미 前章에서 日朝貿易에 대한 金日成의 열망적인 態度 등을 引用한 것을 통해 충분히 숙지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言及을 생략하겠다.

## 2. 經濟計劃体制의 變質可能性

지금까지는 北韓經濟体制의 基本的背景이 되는 理念과 外交政策의 變質可能性에 대해서 言及하였다. 그러나 經濟体制의 內容이 어떻게 變質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우선 經濟体制의 기본인 計劃機構에 있어서의 變化過程을 살펴보고 다음에는 경제구조의 變動에 따른 經濟政策方向의 變化과정들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그동안 여러차례 실시된 北韓의 計劃經濟는 成功된 것 보다 失敗되는 경우가 많았다. 분명히 計劃은 自由主義보다 効率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질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計劃의 前題가 될 目標設定에 있어 經濟性보다도 政治性을 우위에 두었기 때문이다. 北韓의 계획경제는

---

26) 국토통일원, 「北韓社會의 變動가능성과 자유화방안에 관한 연구」, 1972, P. 102.



문자 그대로 國家計劃委員會가 실시하는 國家의 계획이지 國家의 經濟計劃이 아니다. 北韓에 있어 經濟計劃이라는 것이 獨立分野로 存立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計劃經濟의 失敗의 또 하나의 원인은 計劃當局이 모든 企業의 生産量을 계획하고 價格을 계산하여 모든 個人의 所得(賃金)을 算定하고 物質의 순환까지 管理해야 하는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計劃과 実績이 一致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計劃의 限界性이 있다.

특히 前章에서도 指摘하였으나 物質生産에 있어 수량만 채우는 것 보다 品質向上이 요구되는 經濟成長에 따른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는 計劃當局의 손이 質的問題에 가지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後進段階에서 開發段階에 접어든 共產主義國家가 共通으로 當面하는 문제이다. 計劃이 中央集權에서 下部分權으로 변동되지 않을 수 없는 理由도 이와 같은 品質問題를 包含할 때에는 計劃原理가 할 수 없는 일을 利潤原理로 보충해야 할 必要性이 있기 때문이다. 계획이 利潤原理에 의해 보충된다는 그 자체는 利潤을 목적으로 存立하는 自由企業體制의 方式을 그만큼 導入한다는 뜻이 된다.

利潤原理를 도입할 때에는 자연히 生産要素의 價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共產主義經濟學에서는 모든 價値의 기초는 勞動價値뿐이다. 그러나 최근에 利潤原理가 計劃原理에 대한 價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資本의 價值인 利子は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해도 土地의 價值 差額의 地代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共產主義社會의 當면 問題인 것이다.

地代의 인정이 불가피할 경우 集産体制自体가 도전 받게 된다. 이미 東歐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콜호스 (Kolkhoz) 型의 集團農場이 빛을 잃고 農民의 大部分은 私經營形態의 營農方式으로 轉換되었다는 것이다.<sup>27)</sup>

소련에서는 計算價格의 算定에도 問題가 제기되고 있다. 中央의 計劃官僚들은 全國 4萬5千의 工業企業 132千의 國營農場과 337千의 共營農場에서 算出되는 803개가 넘는 品目에 대해 現地事情도 分別함이 없이 生産量과 價格을 指令하는데 대해 문제점이 생긴 것이다.

1962년 9월 리벨만教授는 價格計算에 있어서의 利潤刺戟方式의 導入에 의한 經濟計劃 및 管理制의 改革이 필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計劃經濟改革論을 프라우드紙에 게재하였고 經濟界의 論爭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1965년 9월에 발표된 코시킨經濟改革에서도 어느 정도 反映되어 있다. 이를 계기로 社會主義制度下에서의 價格을 形成하는 要素, 즉 價格決定의 合理的 規範은 무엇인가에 대해 모든 會議, 大會등에서 계속적으로 論爭을 일으켰다.

---

27) 국토통일원, 前揭書, P. 29.

소련의 理論經濟學者나 政策立案者의 大部分은 價格은 實質生産費用을 反映하는 것이어야 하며 需要의 變動에 左右되어서는 안된다는 마르크스主義의 傳統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少數의 數理經濟學者, 네무치노프, 카토로비치, 노보지로프 등의 젊은 學者들은 西方側의 變動價格理論을 점차 받아들여지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價格이 相對的不足狀態를 나타내는 指標의 역할을 하며 따라서 政策立案者로 하여금 一盤的으로 複雜多岐한 相關的經濟過程을 均衡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sup>28)</sup>

北韓에 있어서 集團農場의 自營化, 企業에 있어서의 利潤剝奪方式의 導入, 變動價格理論의 검토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경향은 전혀 보여지고 있지 않으므로 計劃體制에 있어서의 改革이 과연 이루어질수 있는가는 매우 의문이다. 이러한 東歐나 소련에 있어서의 問題提起는 아직 中共에서조차도 發見되지 않고 있으므로 北韓이 이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北韓은 아직도 東歐나 소련과 다른 독특한 金日成의 道그마가 있다. 실제에 있어서는 스탈린主義를 도입했고 소련의 體制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면서도 그들은 金日成의 思想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唯一한 「創造的 解析」이라는 권위적 方法論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이른바 金日成의 唯一思想體系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사실상 이는 思想的으로도 許多한 허구성을 지니

---

28) 李承潤 「소련의 價格理論과 政策」 未發表論文.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金日成은 자신의 見解를 正当化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를 이와 같이 보는 것은<sup>29)</sup> 결코 마르크스·레닌主義를 修正하는 것이 아니다. ....

29) 이와 같이 본다는 것은 본래 마르크스의 主義는 프로레타리아트 革命이 끝나면 國家도 없는 無政府 無階級的社會가 되어야 하는데 반해 金日成의 주장은 「프로레타리아트」독재를 合理化시키고 그로 인해 黨과 政府의 獨裁를 合理化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共產主義가 그들의 말대로 자본가의 독재 따라서 資本家의 政府와 國家를 帝國主義라고 부른다면 지배층이 없는 無政府狀態 또는 無階級狀態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프로레타리아트의 이름으로 地上에서 가장 가혹한 독재정권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人民에게 있어 資本家의 獨裁가 不當하다면 黨이나 政府의 獨裁도 不當한 것이다.

마르크스의 國家理論을 보면 「階級支配의 體現인 國家는 階級들이 死滅할 때 같이 사멸한다」는 귀결이 있다.

H. Kolren 著 李東華譯 「불세비즘의 政治理論」思想界社, 1961.

P. 35.

이렇게 하는 것이 敎條主義와 事大主義를 반대하고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순결성을 고수하는 길이다」<sup>30)</sup>라고 非論理的逆說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北韓에 있어 計劃經濟体制의 改革은 金日成体制가 어떤 힘에 의한 改革이 이루어 지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3. 産業 및 經濟構造의 變質可能性

여기서 말하는 産業構造란 軍需産業이나 重工業위주의 經濟体制로 부터 平和産業과 消費財工業위주의 經濟体制로의 移轉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한걸음 더 나아가서 企業所有 및 生産樣式에 있어서의 變質可能性을 음미하겠다.

물론 스탈린主義는 重工業先導의 産業構造의 구축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스탈린主義를 移植한北韓에 있어 지금까지의 重工業備重을 버리고 輕工業에 치중하게 되는 것도 스탈린主義에 있어서의 중대한 변화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政策의 변화는 1971년 시작되는 6個年計劃에서도 찾을 수 있다. 6個年計劃은 工業成長率을 과거의 計劃보다 대폭 낮추어 年平均 14%에 그치게 하고 있으며 이것은 과거의 計劃이

---

30) 安秉永, 「北韓政治目標分析理論」北韓, 1973. 12. P. 265.

實踐과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풀이 할 수도 있으나 그보다도 重工業우선의 工業化偏重을 버리고 농업에도 적지 않게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섬유류, 신발류, 食料品工業에 중점을 두고 輕工業을 발전시키면서 所有水準을 向上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종래의 重工業우선이라는 스탈린主義를 버리고 輕工業에의 중점을 옮겼다는 점에서 새로운 評價를 할 수 있다.

그러나 6個年計劃이 필연적으로 修正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展望할 수 있다.

그이유는 74년 이후에는 國際經濟情勢에 따라 封鎖體制를 어느 정도 止揚하고 開放體制로 접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重工業爲主로 부터 輕工業에 중점을 주는 産業構造政策의 변화는 北韓經濟의 内部的인 不均衡을 시정하고 所得을 향상시키려는 등의 内部的要因도 있지만 開放經濟를 指向하기 위하여는 필수적인 것이다. 南韓의 輕工業發展은 輸出産業의 비중이 輕工業에 의존하고 있듯이 北韓도 重工業이 輸出産業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그동안 1970년까지 輸出額이 年間 3억달러에 불과했다는 사실로도 充分히 알 수 있다.<sup>31)</sup>

앞으로 東西解氷과 國際經濟의 隊列에 참가 하려면 輸出産業의 發展은 北韓에 있어서도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

31) 그것도 대부분이 原料輸出이었다.

그러나 北韓의 産業構造의 변경중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두는 것은 生産体制의 변동가능성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量産体制을 止揚하고 質的生産에 치중하기 위하여는 먼저 生産者에게 質的向上을 자극할 수 있는 利潤刺戟方式이 불가피하게 요청된다.

이 利潤刺戟方式은 生産体制에 있어서의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종래의 獨立採算制에서는 모든 것은 指令받은 計劃에 따라 生産하면 되지만 利潤刺戟方式에서는 生産責任者 즉 經營者의 創意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指令과 計劃을 초과하는 「그 무엇」이 포함됨으로써 共產主義의 原理를 초월하는 指導原理가 가미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쨌든 北韓經濟가 現在의 經濟構造로써는 成長을 지속하기 어려운 限界點에 도달했다. 이미 60년대에 성장둔화추세를 보였거니와 70年代에도 經濟構造에 있어 改革이 없는限 鈍化趨勢를 파악할 手段이 없다.

軍事動員에 따른 勞動力不足, 外援不足과 內部貯蓄의 不可能性에서 오는 資本不足 封鎖體制下에서의 技術 및 原料不足 工業用原資材와 設備不足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各部門의 不足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手段이 欠如되어 있다. 이미 소련經濟學者들이 變動價格이 相對的不足을 測定하는 手段임을 시인하였거니와 共產主義體制에 있어서도 計劃과 指令을 前題로 할 경우에 무엇이 얼마나 不足한가를 測定하는 것은 計劃立案者의 頭腦뿐이며 不足을 忍耐로 甘受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中央集權體制下에 있는 그들의

頭腦에서는 이러한 不足을 問題視하지 않기 때문이다.

勞動力不足을 측정하고 勞動의 效率性 貯蓄은 財政手段以外에는 없으며 財政은 그 70%가 軍事費에 지출되므로 이러한 體制에서 貯蓄을 기대할 수는 없다. 國民總生産의 80%가 財政部門이며 民間取得은 20%에 不過하며 80%를 所有한 政府가 貯蓄을 外面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限定된 人的 및 物的資源을 軍事力에 동원하고 自主路線을 주장하여 外部로 부터의 資源과 技術을 도입할 수 없는 封鎖體制에서는 成長이 制限될 수밖에 없고 이를 높이기 위하여는 賃金體系의 變動이 허용되어야 하며 資本의 不足을 인식하고 資本蓄積을 고도화하기 위하여서는 利率體系의 變動이 許用되어야 하나 強制勞動과 強制貯蓄以外에는 許用될 수 없는 北韓의 經濟體制에서는 그것이 不可能하다. 事實상 資本不足에서 오는 애로를 그들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것이다.

消費者選擇과 個人貯蓄이 許用되지 않으므로 밖에 없다. 1964년 9월 7일자 노동신문 社說에서는 소련의 프라우다紙의 論評을 반박하면서 심지어 그동안 유일한 資本形式의 수단이 되었던 소련으로 부터의 經濟協力 조차도 착취와 收奪의 手段이라고 다음과 같이 비난하였다. 「自主的民族經濟建設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經濟的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을 편파적인 植民地經濟의 낡은 틀에 머물러 있게 하며 獨立國家들의 自主的發展과 번영의 길을 가로막는 것으로 된다. ……프라우다가 援助의 規範으로 내세우고 있는 평



양방직공장과 흥남비료공장의 一部職場들의 복구건설에 준 원조에서 소련은 國際市場 價格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設備와 강판을 비롯한 資材를 주고 그 대신 우리에게서 數 10 噸의 金과 다량의 고귀한 非鐵金屬과 原料를 國際市場값보다 헐한 값으로 가져갔다」

여기에 北韓의 經濟政策上的 矛盾과 고민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의 말대로 소련이 값이싼 施設材를 주고 값싼 原料를 가져갔다는데서 그들의 말대로 하면 植民主義的擄取를 그들 자신이 시인한 것이 되며 우리의 見解에 따라 풀이하면 資本主義原理에 입각한 貿易을 행할 때에 交易條件이 不利한 것을 甘受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北韓의 對소 經濟協力 및 貿易에 있어 資本主義方式과 結果에 있어 다를 것이 없는 方式을 취했다는 것이다.

또한 北韓當局의 國際市場價格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결국에 있어 比較價格制度가 불가피한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計算價格을 絶對價格으로 하고 變動價格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 社會에서도 國家間의 商品去來에 있어서 比較價格 또는 變動價格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共產主義의 宗主國인 소련에 대해서 조차 自主性을 내걸고 비난을 할 수 있었던 北韓이지만 현재에는 입장과 사정이 完全히 바뀌어 졌다. 이미 前章에서 제기했던 것 처럼 國際情勢의 變動을 맞이하고 그들 内部의 發展이 限界性에 직면하여 이제 外部에 對해 消極的이고 封鎖的인 經濟體制를 모색해야만 하게

된 것이다.

世界經濟의 급속한 擴大와 變化する 國際情勢속에서 北韓만이 뒤떨어 질수 없다고 느꼈고 특히 大韓民國의 급속한 經濟成長에 초조감을 느꼈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 보다도 自由陣營으로 부터의 資本과 技術導入에 적극성을 띄우게 되었고 이는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이 對日姿勢에서도 反映되고 있다.

北韓의 開放經濟에의 指向은 한편으로 그들의 經濟成長力을 強化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관심사가 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体制의 變質을 유도할 수 있다는데서 더욱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 4. 独裁型社会主義의 變質可能性

独裁主義는 하나의 政治理念이기 보다는 手段이라고 보여지며 이론상으로는 어떠한 다른 政治目標를 설정하고 이에 도달하기까지의 過渡期的인 段階에만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金日成維一体系에서는 独裁性은 經濟体制의 變質에 依하여 달라져야 하는 下位의 手段으로 인정될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現實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政治体制에 있어서도 월러스 ( A. Wallace ) 와 같은 사람은 두가지의 文化内容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政治体系가 革命의理念을 표방하는 경우 目標文化 ( goal

Culture) 와 移轉文化 (Transfer Culture) 의 두가지로 区分된다는 것이다. 目標文化는 궁극적인 理想으로 현재의 미흡한 상태를 그 目標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執念의 표현이며 移轉文化는 이와 달리 政策形式을 지도하는 活動規範에 관한 文化内容이라는 것이다. 32)

金日成 唯一思想体系는 이 경우에 비추어 보면 目標文化라기 보다는 移轉文化에 속한다. 따라서 그것은 段階와 次元이 바뀔 때에는 變質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무리 金日成이나 그의 追從者들이 이를 否認하고 그들의 것을 마치 目標文化인 것처럼 주장한다해도 現實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科學的으로 結論지을 수 있는 것은 現實을 土臺로한 文化이어야 하기 때문에 金日成이 이끄는 北韓社會의 現實은 移轉文化이며 따라서 變質可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移轉文化는 어디까지나 革命的인 理念의 目標文化를 달성하기 위한 手段으로써의 政策規範이다.

따라서 移轉文化의 内容은 한편으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理論에 기초하고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들 社會의 現實에 입각하여 革命的인 理念을 그들 나름의 解法에 依存하고 있다. 金日成의 경우 北韓의 現實에 대해 「우리는 資本主義革命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

32) A. Wallace, Culture and Personality New York, 1961.  
P. 148.

生産力이 매우 뒤떨어졌으며 勞動階級과 農民間의 차이는 社会主義 革命을 한후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sup>33)</sup>

라고 前掲하고 이러한 落後된 狀態를 克服하기 위하여 한층 더 가혹한 형태의 獨裁를 취하게 되었든 것이다.

그리하여 生産關係의 社会主義的改造에 앞장섰고 모든 基本的生活 手段의 社会主義的 國有化를 단행하였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社会主義工業化에 있어서는 國家動員體制에 입각하여 이미 앞에서 여러번 지적한 바와 같이 重工業우선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中央集權的強制的計劃管理體制를 구축한 것이다. 더우기 自給自足的 經濟體制 (Autarky)를 구축하기 위하여 封鎖體制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重工業우선정책은 生産財工業과 消費財工業의 不均衡을 초래하였고 그밖에 計劃經濟의 硬直性和 試行錯誤, 과도의 動員體制에서 오는 人間疏外, 自給自足的 封鎖體制가 빚어낸 世界經濟로 부터의 自己疏外등의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시켰다.

---

33) 김상학, 資本主義로 부터 社会主義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獨裁問題에 대하여 經濟研究 (北韓), 1952. 2. P. 484.

### 第3章 經濟交流를 통한 北韓經濟의 變質誘導

#### 1. 第3국을 통한 經濟情報의 交流

이미 앞의 두 章에서도 지적하였거니와 최근 北韓의 經濟動向 가운데 그동안 封鎖體制를 유지하던 北韓이 開放體系에로의 移行이 불가피해 졌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다. 이 자체가 이미 스타린主義의 修正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

특히 北韓은 최근 日本과의 交易에 큰 열의를 올리고 있다. 71년까지만 해도 對日商品貿易의 總合計가 58백만달러이었으나 72년에 드디어 1億臺를 돌파 131백만달러가 되었으며 1년동안에 거의 2.5배의 급격한 伸張을 하였으며 73年上半期에도 72年上半期보다 훨씬 伸張되었다.

또 하나 重要的한 사실은 지금까지 北韓은 自主經濟原則에 따라 輸出入貿易이 國家別로 균형된 것이 특징이었으나 72年 부서의 對日貿易에서는 이 原則이 대폭 커지고 輸出의 2배가 넘는 輸入을 하였다는 점이다. 즉 72年度의 北韓의 對日輸出은 38백만달러이나 輸入은 93백만달러로 거의 2.5배나 되고 있다. 결국 72년도 부서의 貿易의 급격한 신장은 輸出部門이 아니고 輸入部門의 伸張에만 기인되고 있는 것이다.

對日貿易의 급격한 증가와 특히 輸入超過의 급격한 증가는 北韓이 지금까지 취하지 못했던 현상으로 이는 開放經濟에의 移行이

<表-2>

北韓의 对日貿易趨勢

(단위: 천달러)

年 度	輸 出	輸 入	合 計
1961	3,976	4,938	8,914
1962	4,553	4,781	9,334
1963	9,430	5,347	14,777
1964	20,231	11,284	31,515
1965	14,723	16,505	31,228
1966	22,692	5,016	29,708
1967	29,606	6,370	35,976
1968	34,032	20,748	54,780
1969	32,186	24,159	56,345
1970	34,414	23,344	57,758
1971	30,059	28,907	58,966
1972	38,311	93,443	131,754
(1~6)	(16,051)	(33,869)	(50,370)
1973(1~6)	26,395	42,740	69,135

資料: 日朝貿易, 1973. 9.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商品貿易의 증가뿐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機械等 大型프랜트의 導入에 관한 商談도 매우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双方의 貿易關係者의 往來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72년에 北韓을 往來한 日本經濟人數는 7~8백명에 이르고 있으며 同年 10月 日朝貿易會의 초청으로 北韓의 國際貿易促進委員會代表團의 訪日이 實現된 것을 계기로 北韓의 貿易關係者 및 技術者들의 訪日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73년에는 日朝貿易會가 北韓에 파견한 訪朝日本事業界代表團은 例年の 2배인 51社 60名이나 참가했으며 同事業界代表團의 北韓訪門을 계기로 相互 綜合的인 상품전람회 개최, 民間貿易事務所설치 등에 관하여 双方에 基本的인 意思의 一致를 보았다.<sup>34)</sup>

이러한 경향으로 미루어 볼때 北韓의 對日交易은 앞으로도 더욱 擴大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韓半島 및 아시아의 긴장완화정세에 편승한 日本의 對北韓接觸擴大와 北韓의 對自由陣營開放傾向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第3國을 통한 經濟情報의 交流는 우선 가까운 日本에 서도 크게 擴大될 수 있으며 이밖에도 北韓이 自由陣營에 대한 開放體制를 擴大해가는 정도에 따라 다른 第3國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

34) 極東問題研究所, 「國際問題」 73. 5. P. 10.

지난 72년 10월 6일 北韓을 訪問한 日本社会党 사사끼(佐佐木更三)에게 北韓은 美國을 제외한 資本主義國家와의 貿易을 확장하고 人士交流를 증진시킬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美國에 대해서도 交流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다만 對美態度에 있어서는 美中共接近을 계기로 韓半島에서의 긴장완화를 利用하여 駐韓美軍의 철수를 주장하기 위한 政治的 理由 때문에 形式的으로 言及한 것으로 보여지나 지난 11월 UN에서의 韓半島에 대한 討議가 東西의 意見一致로 포결에 부치지 않았고 駐韓美軍의 문제도 현상태대로 존속시킬 것으로 이미 타협을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이상 더 對美交易을 不願한다는 것이 實益이 없을 것이다.

아무튼 北韓이 對自由障營交易등의 開放政策에 있어 그 정도가 국가마다 다르고 얼마나 深化될 것인가는 現實的인 問題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 실현되는 것에 따라 그들 交易圈을 통한 南北韓의 情報交換이나 더 나아가서는 間接的인 商品交易도 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이미 對日交易에 있어서도 動亂後까지 그것이 許容되지 않았던 시기에도 香港등을 통한 間接貿易이 있었던 것을 前例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 南北韓의 經濟交流

南北韓의 經濟交流에 관한 기본적인 研究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南北韓의 段階的經濟交流에 대한 現實的問題와 그 交流의 方向이 北韓의 經濟體制를 變質시키는데 어떻게 작용되어야 할 것인가를 論議하려고 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經濟體制의 異質性 또는 政治體制의 斷絶만 없다면 南北韓이야말로 旺盛한 경제교류를 해야 할 自然的條件을 갖고 있다.

資源分布 産業構造, 勞動力需給등의 經濟活動의 기초가 되는 부문에서 南北韓은 서로 다른 補完的關係에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자연자원에 있어 北韓이 工業化에 압도적으로 有利하고 勞動力에 있어서는 南韓이 압도적으로 풍부하며 産業構造에 있어 北韓은 消費財工業과 化學工業에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기계공업을 비롯한 重工業에 있어서는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여건에서는 다른 制的要因만 배제된다면 經濟交流을 통해 서로가 不足한 部門을 공급해 줌으로서 서로가 有利한 效果를 얻을 수 있다.

南北韓의 鉅産資源分布는 그 絶對量에 있어서 각각 需給에 充足한가의 如否는 論外로 하고 相對的인 分布比率만 보면 다음과 같다. 金 및 銀이 1對2, 銅이 14對6, 亜鉛 1對1, 鉄 1對9, 망강 7對3, 重石 4對6, 鎳 1對4, 모리브덴 3對1, 鉛 7對3, 黒鉛 1對1, 無煙炭 1對9, 有煙炭 1對50의 比率로 특히 鉄과 煙炭은 北韓이 圧倒的으로 많으며 그밖에도 금속자원이 대체

적으로 많다. 35) 뿐만 아니라 鉍產資源開發에 있어서도 北韓이 南韓보다 重點을 더 두고 있으며 生産量도 많다.

韓國은 固定投資에 대한 鉍業投資의 比率이 1.1%에 불과하나 北韓은 17.1%로 投資比率도 많으며 金屬鉍의 生産量도 圧倒적으로 많다. 예를 들면 1970년에 있어 金은 1,400% 對 4,900%, 銅은 1,600% 對 1,300%, 電氣銅은 5,800% 對 13,000%, 鐵鉍石은 640千% 對 6百萬%, 鋼塊는 481千% 對 1,900千%, 鉛鉍은 16千% 對 7萬%, 石炭은 12,394千% 對 27,500千%으로 北韓이 압도적으로 많다.

물론 銀, 重石, 시멘트, 螢石등 部分的으로는 南韓이 더 많은 것도 있다. 36)

미국鉍務局의 專門家 펜스 ( R. A. Fens ) 에 의하면 北韓의 黑鉛, 마그네사이드, 重石生産은 世界的으로 上位水準이며 이밖에 鐵鉍石과 같은 것도 輸出의 餘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産業構造에 있어서는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北韓은 개발전략에 있어 重工業, 鉍業과 農業에 重點을 두어왔고 社會間接資本 ( 특히 運輸 및 通信 ) 이 不足하며 輕工業이 落後되어 있다.

이에 비해 韓國은 輸出産業과 社會間接資本에도 重點을 두고 있어 이 部門이 北韓보다 현저히 발전하였다.

---

35) 大韓鉍業年鑑

36) 商工部, 商工統計年報, 1971. UN, UN 統計年鑑, 1971.

그러므로 北韓에 있어 政治的体制의 變化 또는 政經分離原則에 의해 經濟体制에 있어 現實主義에 입각한 變化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資源 및 産業構造에 입각하여 南北間의 經濟的 및 技術적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北韓에 있어 기술자 및 기능공의 養成에는 크게 중점을 두어온 것은 사실이나 計劃經濟와 量產爲主의 中央集權體制下에 있기 때문에 經營 및 管理者의 育成에는 거의 未開拓의 상태에 있다.

그러나 行政的管理者의 養成은 어느 정도 발달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計劃 및 中央管理制度下에 있으므로 行政的管理者의 수는 상당히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行政管理者들이 新中産者들의 形成을 이룩할 수 있는지가 그들 体制의 變質方向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는 그들 共產主義體制에 있어 현실적으로 計劃管理를 담당한 관료 또는 에리트群을 新中産階層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는 중대한 관심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실사 行政的管理者들에게 經濟生活에 있어서의 富의 축적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中産層의 形成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에리트群의 형성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아무튼 이러한 經濟構造에 비추어 볼때 經濟交流가 先行되어

他部門에의 變質을 유발할 것이나 또는 他國과의 經濟開放에 의하여 經濟구조의 變質을 초래하게 하고 그 결과 經濟交流를 촉진할 것이나의 先後는 명백히 결론지을 수 없다. 하더라도 因果關係의 成立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견해로는 經濟구조의 變質이 先行되고 그것이 經濟交流에 영향을 주면서 다시 經濟構造가 영향을 받는 형태의 因果關係가 成立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北韓의 產業構造가 重工業第一主義로 부터 소비재공업으로의 移行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一般人民으로 하여금 既存體制에 枯息化되어 있던 唯一思想의 體系에 동요를 가져오며 새로운 價值와 生存의 目標를 추구하게 될 것이므로 社會變動과 體制轉換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開放體制에 移行됨에 따라 日本과 같은 自由障營의 物質가 大量 輸入되고 資本去來가 이루어지면 현재까지 資本價值를 否認하고 勞動價值에만 입각하여 모든 經濟재의 價值를 산출했던 價格體制에 變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利潤刺戟的生產方式의 도입이나 土地 또는 資本등의 生産要素價格의 도입이 불가피해 질 경우 모든 人民의 唯一한 生産力動員이었던 勞動動員方式으로 부터 資本動員, 利潤追求를 위한 思想的轉換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南北韓의 經濟交流가 이러한 모든 결과를 자극할 수 있도록 先行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經濟體制的 轉換이 先行되더라도 그 결과 經濟交

流의 가능성이 커지면 그것은 相互促進的으로 体制의 變質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結論 짓고 싶다.

### 3. 國際經濟的側面에서의 變質誘導

최근 中共이 그러하듯 北韓도 국제경제기구에의 加入을 필요로 할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물론 中共은 모든 국제기구로부터 脫대만을 의식하는 政治的인 目的 때문에 國際機構에의 加入이 서둘러지고 있으며 이에 비하여 北韓은 國際機構에의 加入이 갖는 長短點을 現實的으로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共產主義國家들의 정치우위의 形式論理에 비추어 볼 때 北韓의 국제기구에의 加入노력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枯息的인 体制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신축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韓國은 한편으로 社會主義國家의 國際會議에도 업저버등의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自由陣營의 國際會議에 北韓을 참석토록 초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축성 있게 관여할 수 있다.

南北韓이 同時에 加入될 수 있는 國際機構의 國際會議에 있어서 는 그 개최지를 서울로 할 경우 北韓代表者들을 참석시킬 수 있으며 그 開催地가 평양이 되더라도 韓國代表는 그들의 방해만 없다면 참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상 体制의 問題도 國際的인 次元에서 볼 때에는 상대적인

것이다. 北韓의 唯一體制란 쇄국주의에 의해 國際的次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에만 성립될 수 있으며 일단 국제무대에 발을 내딛는다면 그 순간부터 體制의 問題도 相對的으로 비교되어야 하는 것이다.

韓半島에 있어서의 分斷과 對立도 그 根源은 국제적인 것에 연유되고 있다. 프레밍(D. F. Fleming)의 유명한 著書 「冷却과 그 根源(The Cold War and it's Origine (1917~1960))」에서도 한국동란에 대해 言及하면서 「한국은 冷戰의 罪없는 희생자」라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分斷에 대해 그는 미국과 소련의 태도에 기인됨을 지적하면서 특히 「이 點에서는 소련은 成功하였다」라고 言及하였다.<sup>37)</sup>

나는 여기서 分斷의 根源과 責任을 어느 특정국가에게 돌리는 것을 결론 짓기 위해서 이 글을 이용한 것은 아니나 韓半島의 문제의 根源이 國際的인데에서 기인되고 있듯이 體制의 문제도 국제적인 側面에서는 相對的이라는 것을 결론 짓기위해 이 글을 인용한 것이다.

國際的인 側面에서는 명백히 唯一思想體制라는 것은 存立할 수 없다. 그러므로 北韓이 그들의 독재성을 合理化시키기 위해 내걸

---

37) D. F. Fleming; The Cold War and it's origins(1917~1960) 1961.

小幡操訳, 현대국제정치사, 第4卷 P. 181 - 182.

은 唯一思想体系는 오히려 처음부터 存立할 수 없는 것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封鎖國家로 부터 國際的交流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그와 동시에 存立意義도 없어질 수 밖에 없게 될 운명에 있었던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밖에 없다.

唯一思想体系란 설사 그와 같은 體制에 있는 共產國家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며 더우기 全世界的으로 國際化되어야 할 시점에서 계속주장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北韓이 소련이나 中共과 現實적으로는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중국에 있어서는 體制의 變質過程에 있어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미 몇가지 例示한 바와 같이 소련경제의 관측자들은 그들이 어느 정도의 成長段階에 도달하면 西歐式 經濟體制에 接近될 것으로 보고 있다.

共產國家들은 成長의 初期段階에서는 重工業建設이라는 우선적인 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農業과 消費産業을 희생시켰으며 그러기 위하여 封鎖體制를 택하고 또한 中央計劃機關의 강력한 行政的統制手段에 의해 강제적으로 資源을 배분하였다.

그러나 一定한 成長段階를 지나면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市場機能의 부활이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 소련이 이에 직면한 것이다. 北韓은 당분간은 그들의 統制體制에 變化를 기하지 않겠지만 소련과는 달리 資源不足을 國際的協力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시장기능의 부활이 海外部門에서 先導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對日經濟協力에 依하여 借款을 할 경우 元利金償還財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증가가 필요하다. 당분간은 鉍産原料의 輸出에 의하여 메꾸려하겠지만 그들이 과거에 對소貿易에 있어 「소련은 國際市場價格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設備의 銅板을 비롯한 資材를 주고 그 대신 우리에게 數 10 屯의 金과 多量의 非鉄金屬과 原料를 國際市場값보다 훨씬 값으로 가져갔다」는 不平이 또 다시 제기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물론 과거의 對소貿易은 物物交換形式의 兩國間貿易이었으므로 이러한 貿易條件의 不利性이 강요되었을지 모르며 對日貿易에 있어서는 3國通貨에 의한 決済手段을 使用하므로 交易條件에 있어 特別한 變動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역시 鉍産原料를 輸出하고 原資材製品이나 設備를 들여오는 데에는 交易條件의 相對的不利性을 면할 도리가 없다.

그러므로 輸入增大에 따른 決済手段을 벌기위하여 輸出을 大幅增大시키려면 北韓도 결국 製品輸出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北韓이 自由陣營에 단 한개의 製品輸出을 하기 위해서도 그들은 自由陣營의 消費者가 원하는 製品을 生産하지 않으면 안된다.

自由陣營의 消費者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결국 消費者 中心의 市場機能을 도입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開放體制에의 移行이 없이는 더 成長을 계속할 수 없는 資源 및 資本不足한 北韓經濟가 걸어가야할 宿命的인 方向이라 하겠다.



北韓은 南韓을 의식한 政治的固執 때문에 体制의 固守가 形式的으로 강요되고 있지만 現實에 있어서는 經濟成長을 이이상 더 계속하기 위하여서는 對日貿易등 對自由圈貿易의 擴大가 불가피하며 소련이나 中共이 先成長後 市場機能이라는 과정보다도 北韓은 先貿易依存을 통해 海外部門으로 부터의 市場機能의 制度的導入이 불가피할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아울러 國際機構의 諸般活動을 통하여 對話와 競爭秩序속에서 体制의 變質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적어도 金日成唯一思想은 金日成의 生存時에라도 變質될 可能性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金日成의 後斷者가 누구가 될지 몰라도 金日成以後에는 스탈린格下와 같은 樣想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斷言할 수 없다.

